



동방경제포럼의뉴스

극동 방문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화상 컨퍼런스를 통해 일련의 기업체 시공 및 준공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대통령 신호에 맞추어서 '브이소차쉬' 주식회사는 야쿠티야에 광산-채굴 콤비나이트 1동 시공식을 진행했으며, '폴류스'주식회사는 마가단 주에 위치한 광산-채굴 콤비나이트 준공식을 가졌다. (제 1채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 3차 동방경제포럼 개막식이 열렸다.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개막 축사를 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지난 3년간 19개 연방법, 72개 정부령 및 4개 극동 발전 기구 설립 등을 통해 신경제특구가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베도모스찌)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간 직접암호통신체계 마련에 대한 정부 협정, 극동 수산 및 물류센터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 이후 양국 정상은 '극동의 거리' 전시회를 관람했다. (리아 노보스찌)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극동의 사회경제 종합발전에 대한 안건들이 다뤄졌다. (리아 노보스찌)

베트남은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양국 통상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누구엔 반 비넴 베트남 정치부 위원이자 중앙위 비서,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 경제문제 담당이 밝혔다. (프라임)

스바라쥬 인도 외무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에 투자하는 인도 사업가들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라임)

한국은 극동에서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중국 및 일본과 컨소시엄을 설립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김동연 부총리가 밝혔다. 이외에도 김동연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러시아 극동을 포함해 양국 경제발전 이슈를 담당하는 전담 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리아 노보스찌)

2017-동방경제포럼 참석의 목적은 러시아와 캘리포니아, 미국 및 기타 아태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 확대에 있다고 제랄드 에드문드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말했다. (리아 노보스찌)

러시아 정부는 동방경제포럼 중 일본 측에 사할린 섬과 일본 홋카이도 섬을 연결하는 도로 및 철로 건설안 검토를 제안했다고 쉬발로프 제 1 부총리 밝혔다. (모스코프스끼 콤소몰레츠)

극동개발공사와 동부석유화학회사는 선도개발구역 입주업체용 Euro-5오일 등을 생산하는 석유가공 및 석유화학 공장건설 투자프로젝트 합의를 체결했다. 본 프로젝트의 투자액은 6300억루블로 44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베스찌, 경제)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하바로프스크와 연해주 내 4만마리 젖소를 수용하는 우유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프로젝트 합의서 2건을 서명했다. 이 프로젝트 투자액은 300억루블로 1천여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아 PrimaMedia)

9월 6일 연해주 행정부와 '로스아톰' 국영회사는 루스키 섬에 25억 루블을 투자하여 원자력병원 건립에 대한 양허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료시설은 극동 암환자를 위한 진단과 치료서비스를 담당하며, 이웃 국가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리아 노보스찌)

극동개발부와 ESN 그룹은 아무르주 스코보로디노 시에 연간 1백만톤 생산능력이 있는 메탄올 공장 건설 투자 프로젝트 합의를 체결했다. 동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443억루블로, 이 프로젝트로 234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다. (미르 24)

극동개발부와 나훗트까 비료공장은 연해주 나훗트까 비료공장 건설 투자 프로젝트 이행 합의를 체결했다. 공장 완공시 암모니아, 질소, 메탄올을 연간 4백만톤 이상 생산할 수 있다. 총 투자액은 3억8천7백만 루블로 약 195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베스찌, 경제)

베트남 TH 타이 호인 대기업 계열사인 TH 루스 연해주 회사는 연해주 미하일로프스끼 선도개발구역 입주업체 지위를 획득했다. TH루스 연해주 회사는 3개의 축산농장시설과 우유공장을 만들 계획이다. 총 젖소 수는 15천 마리로 예상되며, 연간 우유 생산량은 6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타스)

캄차트카 주정부와 지역공항 회사는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빠트로빠블로프스크-캄차트스크'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현재 공항 이용객수는 연간 60만명에 달하는 데, 향후 1백만명까지 이용객수를 늘릴 계획이다. (타스)

극동개발공사와 일본 마즈다 솔러스 자동차 러시아 법인은 나제진스까야 선도개발구역에서 모터 엔진 생산 공장건립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합의를 체결했다. 본 공장에서는 연간 5만대의 엔진을 생산할 계획이며 투자액은 30억루블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장 건립시 15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리아 PrimaMedia)

코트라, 대한상의, 부산항, 유니코 물류, 한국 씨푸드는 극동에서의 물류센터 및 수산가공센터 설립 프로젝트 등 수산업 분야 투자협력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리아 PrimaMedia)

극동개발기금과 RTS 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장 마련과 관련 보스호드 시스템 프로모션 협력 합의를 체결했다. (프라임)

루스기드로, 일본 정부기관인 NEDO, 야쿠찌야 정부는 야쿠찌야 틱시에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틱시에 1MWt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소를 세울 계획이다. (타스)

바실리에프 교육과학부 장관과 벡셀베르그 스킨코보 재단 이사장은 루스끼 섬에 테크노파크 오픈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현재 테크노파크에는 입주를 위해 300여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7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타스)

러시아 헤벨사는 극동에 태양광 디젤발전소 세울 계획이다. 9월6일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헤벨사는 현대와 극동 투자진흥 및 수출지원청과 합의를 체결했다. (코메르산트)

브네쉬코눔 은행은 가상화폐 마이닝 센터 설립 후보지로 극동을 검토 중에 있다고 고리코프 브네쉬코눔 은행장이 밝혔다. 브네쉬코눔 은행은 또한 극동에 6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검토 중에 있으며, 총 1060억 루블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 신규 프로젝트들은 공항, 부두, 철도 인프라 구비 및 첨단산업 분야에 걸친 프로젝트들이다. (타스)

러시아 직접투자 재단과 알로사는 중국 및 기타 시장에서의 판매망 확충 공동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고 드미트리예프 재단 이사장이 밝혔다. (리아 노보스찌)

2017-동방경제포럼 스포츠 프로그램이 극동 단체 체육대회를 개막으로 막을 올렸다. 이 체육대회에는 230여명이 참가했다. (타스)

아무르 호랑이와 극동 표범 보호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가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루스끼 섬에서 열렸다. (타스)

아무르 호랑이와 극동 표범 보호를 위한 자선 경매가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9월6일에서 7일동안 러시아 천연자원 및 환경부 스탠드에서 진행된다. (이즈베스찌야)

극동 소식

2020년까지 극동에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카차예프 극동개발부 차관이 밝혔다. 이는 극동 지역 인구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타스)

극동경제포럼에서 총 투자액이 15억 루블을 상회하는 4개 회사가 연해주 나제진스까야 선도개발구역 입주 회사 지위를 획득했다. 루스끼 민타이, 콘게르 DV, SNK, 벨레스-스넥 회사 등이다 (REGNUM 통신사)

한국수출입은행은 극동개발재단과 함께 향후 3년간 극동 지역 프로젝트에 2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측과 재단측은 교통 인프라, 산업, 에너지, 조선, 관광 등 분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타스)

JGC Evergreen 일본회사는 2018년까지 하바로프스크 주에서 딸기 생산용 비닐하우스를 만들 계획이다. 하바로프스크 선도개발구역 프로젝트 3단계라고 쉬포르트 주지사가 밝혔다. (타스)

로스나노는 재생에너지 극동재단 설립을 러시아 정부에 제안했다라고 추바이스 로스나노 대표가 밝혔다. 연말까지 러시아 정부가 동 건 검토를 마칠 것을 기대한다고 추바이스 대표가 말했다. (프라임)

'시베리아 실라' 가스관을 위한 신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이 2018년 착공된다. 살드이켈스까야와 올렉민스까야 등 두개의 압축저장소 연결 계약이 체결되었다. (타스)

중국 투자자들의 참가 덕분에 좀 더 빠른 시간 내 연해주 -1과 연해주 -2 국제도로 현대화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미쿨루세프스끼 연해주 주지사가 밝혔다. 그는 또한 연해주 -1 도로 첫 구간 정비 작업이 끝났으며, 2020년경 완공 예정인 두번째 구간 정비를 끝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타스)

참고정보:

동방경제포럼-2017의주최자인'로스콩그레스'
전시회등행사의최대주최단체이다.

재단은회의,

'로스콩그레스' 재단은2007년도에회의, 전시회등사회행사를개최하며수행함으로써 러시아이미지를강화하고경제적잠재력을발전하는데기여할목적으로설립된것이다. 재단은이행사들의내용부분을형성시키며, 단체들과회사들에전문적컨설팅및정보지원을제공하며러시아및전세계경제적일정의제문제를전면적으로연구하며분석하며조명하고있다.

오늘재단의연간일정은몬테비데오부터블라디보스토크까지개최되고있는행사들을포함함으로써한마당에서세계적인비즈니스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권대표자들을모으며새로운구상과프로젝트를논의하며추진하기위해서최선의조건을마련하며사회적기업과자선프로젝트를형성시키는데기여할수있게해주는것이다.